

1 개요

원당할망본은 양반의 소실이 되는 바람에 굿을 못하게 되자 자살하여 조상신이 된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원당할망은 제주 강씨형방이 서울 원당고을의 굿판에서 미모의 처녀를 데리고 왔으나 굿을 못하게 하자 처녀가 한을 품고 자살한 뒤 집안의 조상신이 되었다.

2 내용

성산을 신평리 강씨형방이 서울에 신연살이 갔다가 오는 길에 원당고을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동네 굿청에서 열다섯 처녀가 갑사 쾌자에 연반물 치마를 입고 굿을 하는데 천하 일색이었다.

강씨형방이 유향소에 성명을 물으니, 도내의 심방이라고 하였다. 강씨형방이 그 처녀를 소실로 들여서 도포자락 속에 숨겨 들어왔다. 양반의 집에서 천인을 첩으로 들일 수가 없어서 따로 집을 지어 살게 하고 굿을 못하게 하였다. 할마님이 문을 달아 놓고 춤을 추어도 가슴이 풀리지 않아 몸이 말라갔다. 춘삼월 한물 때에 문을 잠근 채 불을 질러 원통하게 이승을 떠났다.

할마님은 야속하고 원통하여서 양반과 같이 기일제사, 명절을 받아 먹을 수가 없으니 안칠성으로 위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안칠성, 밧칠성으로 나누어 성편, 외편, 동네로 줄기가 이어진 조상이다.

3 특징

성산을 신평리 여무 홍매화가 전승하던 자료이다. 원당할망은 애초에 무당 신분으로 제주 남성을 따라왔으나 굿을 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자결하였다. 양반 집이어서 심방일을 못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정은 조상신본풀이에서는 흔히 보는 것이다.

4 핵심어

신평리, 강씨형방, 신연살이, 원당고을, 쾌자, 연반물, 유향소, 안칠성, 밧칠성, 원당할망, 심방

5 원전 서지사항

원당할망본(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 관련 자료